장학퀴즈로 새 옷 입은 나란다축제

제10회 나란다축제, 9월 8~9일 동국대서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계승 ·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나란다축제가 10회째를 맞아 '장학퀴즈'라는 새 옷을 입어 눈길을 끈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10회 나란다축제는 9월 8~9일 동국대와 전국 군법당에서, 10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다. 특히 10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나란다 장학퀴즈가 신설돼 학교 · 사찰 · 군부대를 대표한 참가자들이 각 단체의 명예를 걸고 지식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나란다 장학퀴즈는 9월 8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고등학생부문과 군장병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고등학생부문은 학교 또는 사찰별로 대표 2인을 선정해 참가하며,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시사 · 상식 문제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행사장 규모가 제한적인 관계로 접수자가 많을 시 별도의 예선이 치러진다. 결선에는 총 8팀(16명)만이 진출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포교원장상과 장학금 100만원, 우수상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과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긴장감 넘치는 퀴즈대결뿐만 아니라 각 학교 또는 사찰별 열띤 응원전도 예상된다. 또한 군장병부문은 참가자가 고등학생만큼 많지 않을 것

학교 · 사찰 대표 2인 참가
불교교리 · 시사상식 대결
각종 상장과 장학금 수여
군장병 위한 대회도 마련

으로 예상돼 군단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시상내역은 고등학생부문과 같다.

나란다축제의 모태가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동국대) · 대전(보문중) · 대구(능인중) · 부산(금정중) · 영천(선화여고) · 제주(예정) 전국 각지서 중 · 고등부 대회가, 9일 오전 11시 전국 군법당서 군장병 대회가 진행된다.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본떠 만든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사찰별 예선통과자들을 대상으로 8일 오후 2시 동국대 금강관서 펼쳐진다. 총 참가인원의 10%를 선발해 퀴즈대회를 실시하며, 올해 처음으로 결선 점수 합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상권내 인원이 남았을 때 점수 합산제로 전환, 문제 난이도별 차등 점수를 부여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사관생도만을 위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도 진행된다. 대회는 국군의날 이후인 10월 6일 오후 1시 충남 계룡대서 열린다.

청소년 신행활동을 증진하고, 우리말 경전 읽기 확산을 위한 '우리말 독송대회'는 8일 오후 3시 동국대 만해광장서 개최된다. 중 ·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한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형식과 독송 주제를 자유 선택해 5분간 선보이면 된다. 대상팀에는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전통문화 체험마당 △회향 한마당 △붓다야! 놀자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등이 행사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각종 프로그램은 인터넷 생중계 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 스님은 7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be the buddha'라는 주제로 시작된 나란다축제가 어느새 10회째를 맞았다. 매년 행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불교의 핵심가치를 전할지 고민하며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는 나란다축제가 대형행사로 자리 잡고, 개념이 정립되는 모습이다.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면 2차 계획을 잘 세우고,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산 스님 49재… "그립지만 늘 우리 곁에…"

7월 13일 신흥사서 막재
1000여 대중 모여 추모

일생을 중생구제 원력 실천에 바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스님의 49재 막재가 신흥사 설법전서 마무리됐다. 막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등 스님들을 비롯해 이수성 前국무총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정계 인사, 이근배 · 신달자 시인 등 문인까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산 스님 49재는 6월 1일 신흥사서 봉행한 초재를 시작으로,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인제 만해마을, 양양 진전사, 고성 건봉사를 거쳐 다시 신흥사로 돌아와 막재를 치렀다. 막재는 법당서 망혼을 맞이하는 대령(對靈) 이후 참여대중 헌다, 반야심경 봉독, 추도법문, 추도시 낭독(병석 스님), 생전 육성법문 청취, 인사말, 소대(燒臺)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추도법문을 통해 "올 때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갈 때도 당처(當處)는 공적(空寂)하고 의연하여 자취가 없으니 어찌 나고 죽고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라며 "가던 날에는 천산만수(千山萬水)의 산빛 물빛을 거두어 갔고 오늘은 만견청산(滿見靑山)에 두견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네"라고 설했다.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무산 스님 영전에 헌다하는 모습. 무산 스님의 평생 지음(知音)이자 호상을 맡은 정휴 스님도 함께했다. 사진=윤호섭 기자

이어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인사말서 "다비식 봉행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막재를 올리게 됐다. 그동안 먼 곳까지 찾아주신 제방 · 대덕 · 문중 스님들과 인연 귀중하신 대중의 발원과 기도로 조실 스님께서도 편안한 적멸에 드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큰스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침과 공덕을 받들어가겠다"고 행사에 참석한 대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하화중생의 실천'을 강조한 무산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막재에 참석한 대중에게 다시 한 번 울림을 남겼다. 무산 스님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는 깨달음 얻은 선승들은 많은데 깨달음의 삶을 사는 선승들은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부처가 되어 무엇합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대중이 중생구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막재가 끝난 뒤 만해축전 초대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수성 前국무총리는 "예나 지금, 내일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같이 계시기에 슬프거나 안타깝기보다는 늘 그리울 것"이라고 무산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최대 현안인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 남북이 함께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이 곧 큰스님이 항상 바라셨던 일"이라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들은 무산 스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홍성란 시조시인은 무산 스님을 떠올리면 늘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무산 스님은 중생의 마음으론 헤아릴 수 없었던 분이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며 "어제 명부전에 모신 큰스님 영전 앞에서 다른 동료 시인들과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때의 기억은 등황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행복한 분위기로,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속초 신흥사=김지원 수습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⑫

장선정 호스피스협회 대구지부 간사

"삶의 끝자락서 희망 씨앗 발견"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있는 장 씨(사진 오른쪽)와 동료.

장선정 씨의 하루는 고단하다. 오랜 암투병 끝에 치매까지 생긴 시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 서울대 병원에서 그녀는 시아버지가 전립선암이란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지난 2010년 시아버지는 다시 대장으로 암이 전이됐고, 수술을 해야 했다.

1998년부터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현회에서 활동해 온 그녀는 사경을 헤메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죽음 앞에서 존재의 가치를 다시 살피는 일에 뛰어 들고자 했다. 그래서 2011년 마하보디교육원의 불교 호스피스 33기를 나오고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기력이 쇠해지시면 치매도 옵니다. 암에 치매가 오신 아버님을 도저히 집에서만 보살필 수는 없어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아버님을 보살피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시아버지 곁이 아닌 다른 중환자들 사이를 누볐다.

"아무래도 아픈 가족이 있다보니 저희 가족 같았습니다. 죽음은 외롭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데, 혼자서는 존엄하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어야죠."

장 씨는 봉사를 하러 가기 전에 대구 무광산사에서 기도를 한다. 성철스님의 마지막 상좌인 원구 스님이 그녀에게 맞는 기도를 정해줬다. 참선과 함께 자기성찰이 중심이 된다.

"아무래도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되면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며 마음이 트여요.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마음 치유가 필요하죠. 협회에서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도와 함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씨의 양가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다. 앞서 치매까지 온 시아버지는 91세의 나이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편찮은 상황이지만 그녀는 틈을 내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희 가족만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아픈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끼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을 넣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봉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